

당나귀와 소금장수

어느 마을에 소금장수가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당나귀 등에 소금을 싣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소금을 팔곤 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소금 장수는 당나귀 등에 소금을 싣고 이웃 마을로 향했어요. 이웃 마을로 가려면 개울 하나를 건너야만 했어요.

그런데 개울을 건너던 당나귀가 그만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소금 자루가 물에 젖어 소금이 몽땅 녹아 버렸어요. 당나귀가 일어나서 보니, 소금이 물에 녹아서 짐이 아주 가벼워져 있었어요.

'야, 이것 봐라! 넘어진 덕분에 짐이 가볍게 되었으니, 오늘은 고생을 안 해도 되겠군!'

당나귀는 속으로 기뻐하며, '_____!'하고 마음 먹었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다시 소금을 지고 개울을 건너게 된 당나귀는 일부러 물에 빠졌어요. 그러자 소금 자루는 또 가벼워졌어요. 당나귀의 속셈을 알아차린 소금장수는 몹시 화가 났어요.

'흐음. 이 녀석이 꾀를 부리는군! 어디 단단히 혼 좀 나 보거라!'

다음날 아침이 되자, 소금장수는 당나귀를 혼내주려고 당나귀 등에 소금 대신 솜 한 뭉치를 실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개울가에 이른 당나귀는 이번에도 개울 한가운데서 또 일부러 넘어졌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가벼워져야 할 등짐이 엄청나게 무거워진 것이 아닌가요?

당나귀는 물에 젖어서 소금 자루보다 몇 배나 더 무거워진 솜 자루를 등에 지고 헐떡거리면서 걸어야 했어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당나귀는 자기가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것을 뉘우쳤답니다.

당나귀에게
한마디!